

#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Female Colleges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성숙도 영역가운데 결정성, 독립성, 관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타협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 1학년때 부터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influence a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ha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goal choice, job information and future plan which are sub-variab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hile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problem solving. Also the progra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decision, independency, and involvement which are sub-variables of career maturity while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compromise. Such results show that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subjec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should be properly developed and provided so that students can choose career which fit for their aptitude and ability. Further, courses for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should be provided at universities to help them with career.

■ keyword : |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Maturity |

## I. 서론

진로를 삶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때에 진로문제는 인생의 전반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로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만큼 광범한 문제인 만큼 상담을 통한 조력 또한 필수적인 영역이다. 실제로 대학생 시절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최종 준비 단계이자 실질적인 진로 결정 단계이다. 따라서 발달 단계상 진로에 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및 진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걸어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9]. 최근 들어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바로 학업과 진로문제이며, 해년마다 그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10-13].

특히,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14]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카드를 활용한 집단진로탐색활동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5]. 뿐만 아니라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13]. 최근에,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16]. 그런데 아직까지 진로탐색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여자대학생들이 진로탐색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진로탐색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로탐색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욕구, 흥미, 적성, 능력, 가치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의 정보와 이해를 통해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 즉, 학생들은 진로탐색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 적성, 흥미, 성격 등에 대한 이해와 진로발달 측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진로의식을 촉진하며, 진로계획을 확립하고 현명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준비, 선택에 필요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지혜[7]는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집단원들이 자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경분[9]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전문 상담자나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흥미·적성·가치관 등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고,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보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은 자기발견, 직업세계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선택, 진로계획, 정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3][4][9],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이해, 직업세계, 의사결정, 기관방문인터

뷰, 미래이력서 만들기, 총 평가 및 마무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뿐만아니라,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력서를 만드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Bandura[1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분야에 적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Betz와 Hackett[18]에 의해 이론적 발달을 하게 되었다. Mazurek과 Shoemaker[19]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은성[4]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강덕구[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척도로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선택에 대한 발달이론가들에 의해 발달된 개념이다[20]. 진로성숙을 최초로 개념화한 Super[21]는 진로성숙을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충기[22]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고 보았다. 이해경[23]은 진로성숙도란 진로의식, 진로탐색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강덕구[2]는 진로성숙도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발달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성숙도란 진로를 선택, 결정할 때 자신의 환경과 직업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의 수준 및 현실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개인이 도달한 발달 정도와 직업적 준비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도의 척도로는 결정성,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 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김경모[24]의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을 실시한 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덕구[2]는 중학생의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4개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목표선택과 문제해결은 월등하게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성[4]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문제해결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강지윤·김성지[25]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진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진로 미결정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덕구[2]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진로성숙도(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 진로타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은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타협성은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경분[9]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결정성, 독립성 및 관여성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집단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집단원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타협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유의미하게 향상 될 것이다.

가설 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 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한 회기당 90분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준비단계, 자기이해, 직업세계, 의사결정, 기관방문, 종결단계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영역	회기	프로그램	활동목표	시간
준비	1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프로그램의 취지와 지켜야할 집단규칙을 이해하고 자신을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하고 직업별칭을 짓는다.	90분
	2	나의 성격유형 알아보기	자신의 성격, 습관 등을 탐색해 보고 성격에 맞는 분야를 탐색한다.	90분
자기이해	3	나의 흥미, 적성 알아보기	직업, 적성, 흥미검사를 실시하고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안다.	90분
	4	직업의 세계 이해(I)	관심있는 분야 및 선택한 이유,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및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90분
직업세계	5	직업의 세계 이해(II)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 선택하고 설명하도록 함.	90분
	6	직업가치관 경매게임	직업에 대한 가치관 경매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가치관을 알아보고 진로선택과 연관시켜 본다.	90분
의사결정	7	의사결정유형알아보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유형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법을 익힌다.	90분
	8	기관방문 인터뷰	산학협력체결 기관 및 선배취업 기관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90분
종결단계	9	미래 이력서 만들기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인식한다.	90분
	10	총 평가 및 마무리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자신의 성장을 확인한다.	90분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실험집단	O,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X)	O,
통제집단	O,		O,

실험집단: 프로그램 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 실시하지 않음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012년 3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신입생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수락한 여대생 26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3명씩 배치하였다.

5. 연구도구

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Betz와 Voyten[26]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7]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변안한 것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수정한 것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하였다. 4개 하위요인 별로 점수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목표선택	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	1,2,3,6,8,9,11,14,18,20,22	.72	.76
직업정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7,15,18,21,23,24	.70	.74
문제해결	원하는 직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13,17,25	.68	.71
미래계획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5,10,12,16	.74	.76
합계		총 25 문항		

1.2 진로성숙도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Critis[2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원중[2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수정한 것으로 결정성,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으로 구성하였다. 4개 하위요인 별로 점수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성숙도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결정성	개인이 진로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뚜렷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1,2,3,4,5,6,7,8,9,10,11,12,13	.73	.75
독립성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인가 또는 의존적인가를 나타낸다.	14,15,16,17,18,19	.76	.71
관여성	개인이 진로선택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가를 나타낸다.	20,21,22,23,24,25,26	.77	.76
타협성	개인이 욕구와 현실을 얼마나 잘 타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27,28,29,30	.68	.86
합계		총 30 문항		

6. 자료분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얼마 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집단 (N=15)	M	SD	t	p
목표선택	실험집단	3.5455	.3360	.445	.534
	통제집단	3.4754	.3325		
직업정보	실험집단	3.0641	.3698	-6.35	.536
	통제집단	3.1865	.3834		
문제해결	실험집단	2.9974	.4674	-8.25	.382
	통제집단	3.0128	.4335		
미래계획	실험집단	3.4923	.4872	.623	.545
	통제집단	3.3852	.4553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 하위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나. 진로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진로성숙도	집단 (N=15)	M	SD	t	p
결정성	실험집단	3.2244	.4644	.575	.533
	통제집단	3.1784	.3785		
독립성	실험집단	3.4359	.6218	-7.68	.475
	통제집단	3.5875	.6986		
관여성	실험집단	4.2198	.6351	.634	.374
	통제집단	4.0996	.4958		
타협성	실험집단	3.6615	.4426	.469	.449
	통제집단	3.5854	.5952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전 하위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진로성숙도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목표선택	실험	3.5455	.3360	4.0280	.3662	-4.931	.000
	통제	3.4754	.3325	3.3457	.3264		
직업정보	실험	3.0641	.3698	3.8077	.4240	-6.341	.000
	통제	3.1865	.3834	3.2564	.3572		
문제해결	실험	2.9974	.4674	2.9021	.4481	.592	.465
	통제	3.0128	.4335	3.1235	.4842		
미래계획	실험	3.4923	.4872	3.9385	.3305	-3.852	.002
	통제	3.3852	.4553	3.3657	.3667		

위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성숙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결정성	실험	3.2244	.4644	4.4615	1.1900	-4.016	.002
	통제	3.1784	.3785	3.1087	.6735		
독립성	실험	3.4359	.6218	3.8582	.5143	-2.532	.039
	통제	3.5875	.6986	3.6153	.5366		
관여성	실험	4.2198	.6351	4.5604	.3521	-2.226	.046
	통제	4.0996	.4968	4.1254	.6586		
타협성	실험	3.6615	.4426	3.5077	.3426	.941	.365
	통제	3.5854	.5962	3.6044	.5263		

위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가운데 결정성, 독립성, 관여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타협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역가운데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직업의 세계이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안에서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알게 되었으며, 취득해야할 자격증이 무엇이며,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직업의 세계이해’ 활동이 학생들의 목표선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정보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관심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제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우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기관방문 인터뷰’활동을 통해 취업 선배들과 직접 만나서 대학생살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미래계획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 이력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세워 보고 다른 학생들앞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확신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미래 이력서 만들기’ 활

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봄으로써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명확해 졌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였던 김경모[24], 강덕구[2], 박은성[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은성[4]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의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생들로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성숙도 영역 가운데 결정성, 독립성, 관여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타협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결정성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직업의 세계 이해’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가운데서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자격증 가운데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취득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육원,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매우 다양한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등 취득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자격증이 있다.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이해’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와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선택하도록 함으

로써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진로독립성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유형'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법들을 익힘으로써 의존적인 의사결정유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으로 변화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의사결정유형' 활동 시간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안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며,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대학생활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관여성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적성, 소질, 성격에 맞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스스로 선택하여 기관방문 인터뷰를 통해 취업현장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활동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선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관심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취업한 선배들을 만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관심있는 분야와 맞는지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강지윤·김성지[25], 강덕구[2], 박경분[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타협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덕구[2], 박경분[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이 사회복지학과 1학년들을 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현실과의 타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 1학년때부터 실시함으로, 기관방문 및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

신의 미래 이력서를 작성해 보도록 함으로써, 대학생활 설계를 스스로 해 보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 필요한 활동 및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대학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교과목이 다양하게 실시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 참고 문헌

- [1] 김연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인간이해, 제19집, pp.1-20, 1998.
- [2] 강덕구,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 이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 박은성,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5] 정지숙,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 박미옥,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7] 이지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8] 김순옥, REBT를 적용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계 여자고등학생들의 진로신화 및 진

- 로정체감,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9] 박경분,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0] 김현수, 장기명, 이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261-278, 2004.
- [11] 박완성,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진로정체감·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 203-216, 2005.
- [12] 고미나, 박재황,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69-85, 2008.
- [13] 조규환, 주희진,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273-291, 2009.
- [14] 이윤우, 진석연,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6권, 제2호, pp.135-157, 2011.
- [15] 이윤우, “직업카드를 활용한 여대생의 집단 진로탐색활동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119-133, 2010.
- [16]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486-495, 2011.
- [17]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18] N. E. Betz and G. Hackett,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19] N. Mazurek and A. Shoemaker,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1997.
- [20] 김현옥,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 제8권, 제1호, pp.143-160, 1989.
- [21] D. E. Super,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y*, Vol.1, pp.2-20, 1969.
- [22] 김충기, *진로교육의 본질*, 평민사, 1983.
- [23] 이해경,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4] 김경모,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남자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5] 강지윤, 김성지,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인간이해, 제24집, pp.1-31, 2003.
- [26] N. E. Betz and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1997.
- [27]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27-136, 2000.
- [28] J. O. Crites, *Career Maturity Inventory : Administration & user's manual(2nd ed.)*, Monterey, CA : McGraw-Hill, 1978.
- [29] 김원중,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저 자 소 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정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